

조선산업



11월에도 한국 수주잔량 증가율 감소 지속

산업분석

2025. 12. 04

treaboat@treaboat.com

산업 전망

11월 한국 수주잔량 5.7% 감소

지난달 한국 조선업의 선박 수주잔량은 35,299천 CGT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5.7% 감소했다. 2023년 12월의 39,711천 CGT와 비교해 수주잔량은 11.1% 줄었다. 지난달 한국 조선업의 수주량이 소폭 늘어나며 지난달 수주잔량이 전월의 33,762천 CGT보다 소폭 늘었지만 지난달 선박 인도량은 최근 12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량은 인도지연으로 인해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조선업은 인력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 지난해와 올해 대형 조선소들이 주기적으로 선박 인도지연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 늘어나지 못하는 수주량과 정체된 인도량을 고려할 때 지금의 수주잔량이 많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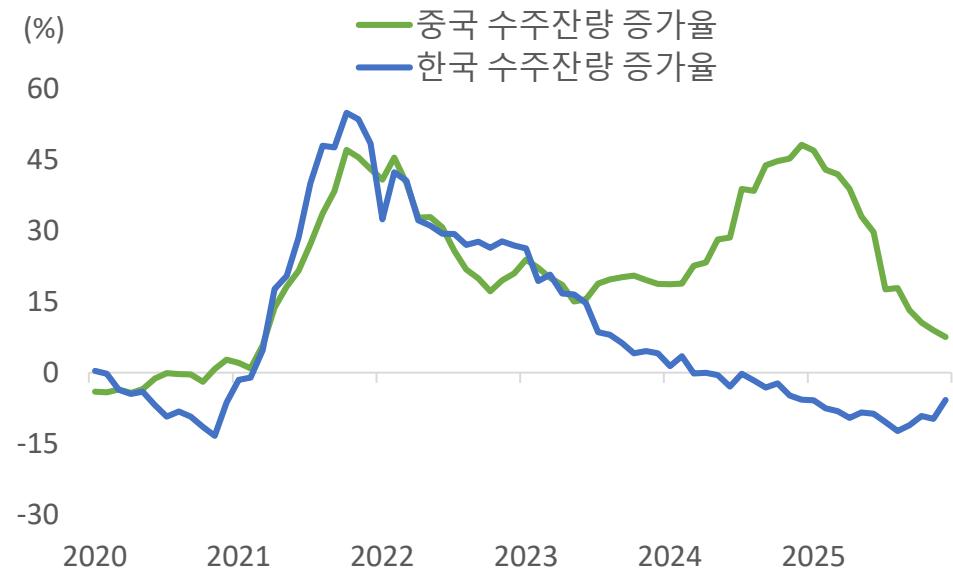
중국 수주잔량 증가 지속

지난달 중국 조선업의 수주잔량은 104,619천 CGT를 보이며 1년전과 비교해 7.5% 증가했다. 중국의 수주잔량 증가율은 점진적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을 받아 전세계 선박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 조선업은 수주잔량 증가율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에 비해 선박 수주 경쟁력이 월등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은 24개월 연속 수주잔량이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중국은 몇 년째 수주잔량 증가율은 계속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전히 중국의 수주 점유율이 최소한 50%는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수주잔량 증가율은 내년에도 증가 추세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LNG선 인도량 증가의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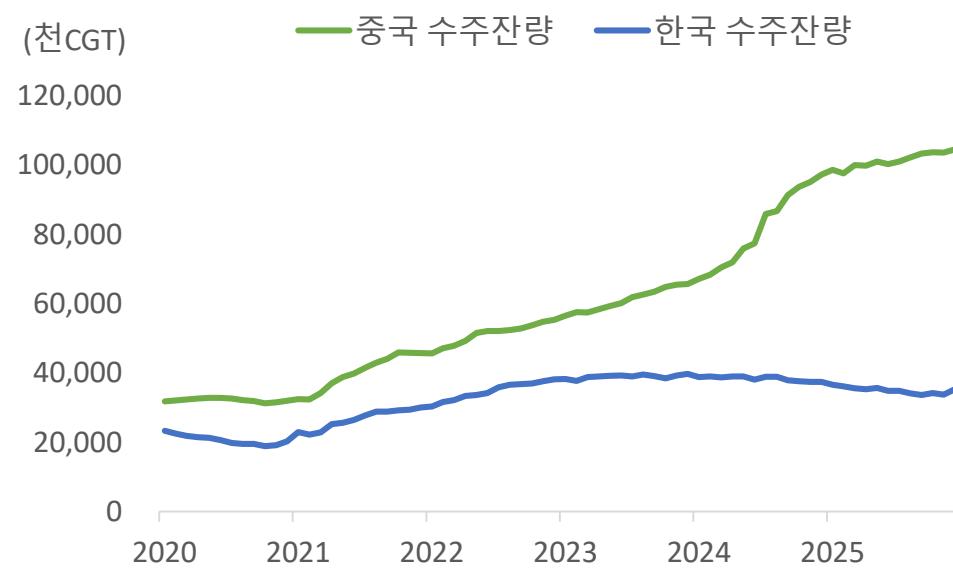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량의 절반 이상은 LNG선박이다. LNG선박은 건조기간이 가장 길고 척당 가격이 가장 높다. 이는 LNG선 인도가 늘기 시작하면 수주잔고 감소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년이면 한국의 LNG선 인도량이 상당부분 진행된다는 점에서 수주잔량 증가율이 높아지지 못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위험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 중국과 한국 선박 인도량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그림2] 중국과 한국 선박 인도량 비교



자료: 시장 데이터, 트레보트 리서치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증권투자를 돋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이 아닌 전반적인 산업 전망과 기업 경영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은 물론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